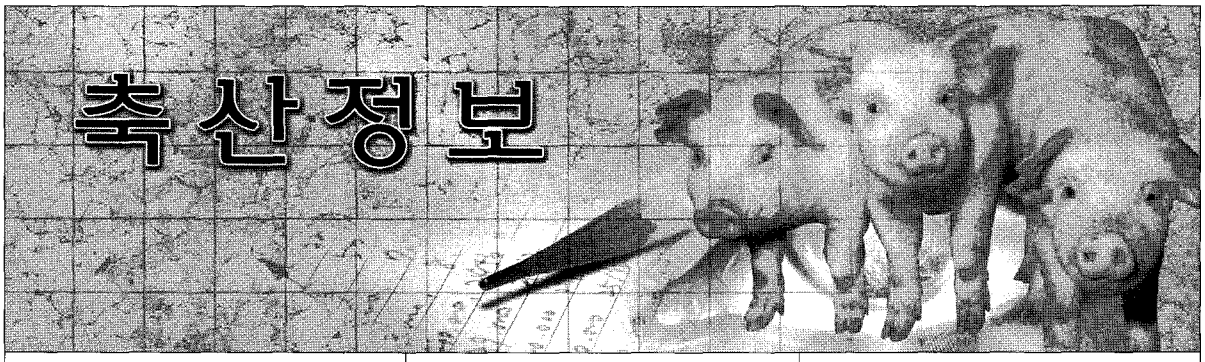


돼지 생산액 3조6천억…축산업 중 1위 '고수'

-2004년 돼지 생산액 농림업 총 생산액 중 2위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2004년 농림업 총 생산액 조사 자료에 따르면 돼지 생산액은 총 3조6,668억원으로 미곡 9조9,631억원에 이어 농림업 총 생산액 중 2위를 고수해 축산업 중에서도 최고 생산액을 기록했다. 또한 농림업 총 생산액 37조2,886억원 중 축산 생산액은 10조8,399억원으로 쌀 생산액 9조9,631억원보다 약 1천억원 정도가 많은 것으로 집계돼 축산 총 생산액이 미곡 생산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 생산액은 지난 2001년 2조6,923억원, 2002년 2조9,184억원, 2003년 2조6,812억원, 2004년 3조6,668억원으로, 2004년에 3조원을 훌쩍 넘었으며, 전년대비 37% 큰 폭으로 증가했다. 품목별 생산액 순위는 미곡, 돼지, 한·육우, 우유, 계란이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됐다. 이들 5대 품목은 농림업 생산액의 5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곡과 돼지, 한·육우, 우유는 '96년 이후 상위 5위 품목에 포함되어 왔다.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방역 '올인'

농림부는 최근 PMWS(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등 돼지만성소모성질병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질병 발생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농진청 축산연구소에서 적정 사육두수 모델을 개발, 축사환경 개선방안을 수립해, 축산연구소와 검역원, 학계 등이 T/F팀을 구성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수의과학검역원은 농장위생 자체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며, PMWS 감별진단법 및 PRDC 진단법을 개발하는 등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양돈협회에는 사양관리 현장 컨설팅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각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등지방 두께에 따른 질병 내성도 평가 및 배합사료 관리개선, 전국 양돈장의 모돈 건강검진제도 추진, 피해가 심한 농장에 대한 전담 관리반 운영 등도 계획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돈열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마련

-돈열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돈열 예방접종 금지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별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달라지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마련한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특히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 미실시의 경우, 혈청검사 결과 및 사육규모별 과태료 금액이 현행과 다르게 항체양성율 기준이 조정되며, 과태료 금액은 세분화된다.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율 기준은 70~80% 미만, 60~70% 미만, 60% 미만으로 조정되고, 사육규모는 100두 미만, 100~500두 미만, 500두 이상으로 현행과 같다. 단 과태료는 항체양성율 70~80% 미만 및 사육규모 100두 미만일 경우 1차 과태료 15만원, 2차 50만원, 3차 150만원이며, 60~70% 미만 및 100~500두 미만인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75만원, 3차 2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60% 미만 및 500두 이상일 경우에는 1

차 25만원, 2차 100만원, 3차 2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예방접종금지명령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은 사육규모별로 산출해 적용되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돈열 발생 농가에 대해 관련 과태료의 최고치인 500만원을 적용하던 별도 규정을 삭제되었다.

농림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제도개선 추진

-고액분리기 지원 확대 · 액비살포비 신규 지원

농림부는 최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91년부터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처리 시설비를 지원해왔는데, 단독시설의 경우 돼지 3억원, 공동시설의 경우 돼지 15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전 처리시설인 고액분리기를 설치한 경우 개소당 사업비 대당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액비살포비(액비살포비 지원단가 15만원/ha)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 확보 중에 있다.

또한 농림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제 시범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즉 농가 등 사업자와 시공업체간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대상 농가는 사업대금을 반드시 시공 · 납품업체의 통장에 계좌입금한 후 사업주관기관에 입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비 1억원, 기계 · 장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입찰제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개별농가가 아닌 시나 군에서 입찰업체의 자격기준을 정해 이를 통과한 업체만 개별농가와 시설설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도 장기간 휴 ·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사업재개를 촉구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으며,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등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2006년 사업부터 예산지원을 삭감해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 발생 최다

돼지만성소모성질병은 돼지의 폐사 등 양돈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꾸준히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농림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방역대책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은 16건,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은 20건,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20건, 돼지써코바이러스감염증(PCV2) 290건, 돼지호흡기복합병(PRDC) 4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PED는 2003년 90건, 2004년 45건이 발생했으며, PRRS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21건이 발생했다.

특히 PMWS는 지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이 증가해 2002년 200건, 2003년 276건이 발생했으며, PCV2는 2004년에 660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였다. PRDC 또한 2004년에 177건이 발생하는 등 이들 질병이 꾸준히 발생해 양돈농가에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공식 출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연순환농업팀(팀장 이상철)'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최근 농림부는 가축분뇨 퇴 · 액비 이용을 촉진해 화학비료를 대체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 · 운영키로 했다.

이렇게 출범된 '자연순환농업팀'은 지난 7일(수) 자연순환농업팀 사무실에서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자연순환농업팀 사무실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12 영덕빌딩 7층

「우리농업 희망찾기」 국민대상 정책 공모

-농림부, 9월 9일~10월 10일까지

농림부는 올해 상반기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농업정책 공모를 실시한데 이어 농업인과 소비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농업 희망찾기」농업정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농업인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농정에 참여하는 효과를 제고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기간은 9월 9일(금)~10월 10일(월)까지이다.

정책 공모 입상자에게는 상금 및 농림부장관상장이 수여되며, 대상 1건에는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3건은 300만원, 우수상 6건에는 100만원, 장려상 9건에는 50만원 등 총 2,4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공모된 정책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11월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농림부 02)500-2014

▲농촌정보문화센터 02)3498-6521

돼지 등급판정 수수료 67% 인상 추진

-등판소, 돼지 1두당 300원서 500원으로 상향조정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최근 등급판정 수수료를 1두당 300원에서 67% 상향된 5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 협의한 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등급판정소는 지난 7월에 개최한 제2차 이사회에서 등급판정 수수료 조정 검토(안)을 보고했으며,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와 관련한 안내 리플릿을 배부했다. 수수료 조정(안)에 따르면 소는 1두당 2,500원이며, 돼지는 1두당 현행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추진된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리플릿을 통해 등급판정소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축산발전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금 수입이 현저히 감소돼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본회는 등급판정소 운영경비 수입감소분을 전부 농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등급판정소 자체적으로 운영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등급판정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브랜드 우수경영체에 85억 지원

축산물브랜드사업 우수경영체에 대해 인센티브 총 85억원이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된다. 농림부는 최근 2004년 브랜드사업 지원업체 중 사업추진실적이 우수한 3개 업체에 대해 총 85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브랜드사업 실적 평가는 '04년 브랜드사업 참여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결과를 토대로 우수 경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부진 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경영체로 양평축협과 부산경남양돈조합, 합천축협을 선정, 무이자 자금(1년 융자)을 지원키로 했다. 따라서 1위 양평축협에는 40억원이, 2위 부산경남양돈조합에는 30억원, 3위 합천축협에는 1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번 평가는 농림부, 시·도, 농협과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이 합동 실사팀을 구성해 현장실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평가대상은 2004년 브랜드사업 참여 26개 업체, 평가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였다.

농림부, 축산물종합처리장 활성화 대책 마련

농림부는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LPC)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축장에 대한 HACCP 운영수준과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상위(1/3) 0% 금리, 중위(1/3) 3%, 하위(1/3) 지원배제 등 운영자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정부지원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기간은 2005년 도래액부터 2년간 상환 유예된다.

이울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부분육 거래 활성화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을 위해 산지 LPC에 대해 부분육 도매기능을 부여하고 부분육

으로 상장 거래토록 했다. 이와 함께 LPC의 경영안정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도축장 신규지원 중지 및 2개소 이상 통폐합시 자금을 지원해 도축장 신설을 억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HACCP 제도 운영 관리도 강화된다.

LPC는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가축의 생산부터 도축 · 가공 ·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일관시스템을 갖춘 도축 · 가공장으로 현재 7개소가 운영중이다.

품관원, 원산지표시 우수판매장 263개소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은 원산지표시제 전국 263개소 우수판매장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판매장은 각각 농협 89개소, 백화점 33개소, 할인마트 95개소, 슈퍼 43개소, 정육점 3개소이며, 시도별로는 경기 88개소, 강원 12개소, 충북 6개소, 충남 18개소, 전북 14개소, 전남 41개소, 경북 38개소, 경남 43개소, 제주 3개소 등이다.

품관원은 농산물 판매업체가 스스로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원산지표시 우수판매장을 지정한 것이다.

품관원은 "6월중 관련업계로부터 신청을 받아 최근 2년 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이 없고, 일정 면적과 원산지관리 부서 및 관리인원 등을 갖춘 판매장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와 선정기준 부합여부 등 심사를 거쳐 294개 업소 중 선정기준이 미달된 31개 업소는 제외하고 지정했다"고 밝혔다.

2004 농가부채대책자금 대출 올 10월말까지

농림부는 더 많은 농업인이 부채경감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중 농신보 발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한해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대출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검역원 동물용의약품 민원사무 업무 개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동물용의약품 민원사무 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중이다.

검역원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민원업무가 담당인력의 부족, 업무처리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만요인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역원은 현재 동물약사 업무 인력을 전폭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특히 '쓰리 텔레콜(Three Tele-Call, 3단계 사전전화 안내)' 제도는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한 전화안내로서 지난 7월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전화상담제도도 신설 ·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방역과는 쓰리 텔레콜 시스템을 보완해 SMS 및 E-Mail 서비스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 농진청 · 검역원 축산현안 합동토론 개최

농림부 축산국(국장 박현출)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 농진청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 등 축산분야의 정책 및 기술 ·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 임 · 직원 150여명은 지난 2일 농업연수원에서 축산현안 사항에 대한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로 혼합 편성한 6개 분임(각 25명)에서 주제별로 분임토의를 갖고 결과를 발표하며 미래 축산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3개 기관간 유기적 협력방안, 악취방지 및 양분총량제 대비 효율적 처리방안과 각 기관의 역할, 우리 실정에 맞는 축산물이력시스템 정착을 위한 각 기관간 협력방안과 가축유전자원의 국가관리 체제 구축방안 등을 주제로 펼쳐졌다.

미산 쇠고기 연내 수입재개 안될 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가축방역협의회 개최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연내 수입이 사실상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미국 당국이 6월 최종 확인된 두 번째 광우병 감염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추후 미국 측이 자료를 보내오더라도 이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 중인 가축방역협의회 재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입 재개 원칙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수입 재개까지는 3~4개월이 걸린다며 올해 안에 수입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7월 양돈사료, 39만6천톤, 전월대비 4천톤 감소

양돈사료량이 계속 줄어 40만톤을 넘지 못했다.

7월 양돈사료량은 39만6,468톤으로 전년동월(42만 4,317톤)대비 6.6%(2만7,849톤) 감소했으며, 전월대비 4천톤인 1.0%가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누계 생산량은 290만4,908톤으로 전년동기 306만2천톤대비 15만7천톤인 5.1%나 감소했다.

용도별로는 젖먹이돼지가 2만2,872톤으로 전월대비 4.7% 증가, 젖뗀돼지가 10만7,593톤으로 전월대비 1.0% 증가했으며, 육성돈후기가 6만5,208톤으로 0.8%, 번식용 수퇘지가 929톤으로 13.2% 각각 증가했다. 반면 육성돈전기는 10만5,435톤으로 전월대비 2.2% 감소, 비육돈은 5,314톤으로 전월대비 2.9% 각각 감소했으며, 비육돈출하는 7,421톤으로 9.6% 큰 폭으로 줄었다. 또한 번식용암퇘지는 940톤으로 5.8% 감소, 임신돼지 4만7,522톤으로 5.2% 감소했으며, 포유돼지도 3만3,234톤으로 전월대비 2.0% 줄은 것으로 집계됐다.

7월 도축두수 100만두 선 붕괴

-7월 98만309두, 5년만에 최저치

최근 농림부가 집계한 7월 돼지 도축두수는 총 98만309두. 이는 지난 2000년 7월 돼지 도축두수가 97만두를 기록한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은 물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도축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7월 도축두수는 지난달 102만5,568두보다도 4.4%나 낮게 집계됐으며, 지난해 7월과 비교해도 12.7%나 낮게 나타났다.

이중 암컷은 49만2,878두로 전월대비 4.4% 감소, 전년대비 13.5% 감소했으며, 수컷은 48만7,431두로 전월대비 4.4%, 전년대비 11.8%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총 도축두수도 764만9,295두로 지난해 동기간 836만177두에 비하면 8.5%나 감소한 수치이다.

돼지고기 수입량 8월 현재 12만9천톤

올해 8월까지 돼지고기는 약 12만9천톤이 수입됐다. 이는 지난해 총 수입량 10만9천톤보다 많은 양이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물 수입 검역통계에 따라 이같이 밝히고, 8월중 수입량이 1만2,663톤으로 전월 1만243톤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8월 한달 간 2,543톤, 8월까지 3만1,789톤으로 국별 수입량 중 꾸준히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8월에는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도 전월보다 증가해 2,439톤을 기록했다. 한편 캐나다는 1,745톤, 벨기에 1,541톤, 프랑스 1,397톤이 각각 수입됐다.

8월중 냉장돈육은 총 4,728톤, 냉동돈육은 총 12만4,143톤이 수입됐으며, 부위별로는 갈비 1,227톤(8월 현재 18,250톤), 뒷다리 89톤(1,080톤), 등심 15톤(622톤), 목심 1,448톤(20,513톤), 삼겹살 6,860톤(62,192톤), 앞다리 428톤(13,052톤)이 수입됐다.

특히 등심, 목심, 안심, 앞다리 부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됐으며, 갈비는 프랑스, 삼겹살은 벨기에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돈육 재고량 소폭 감소

7월 돼지고기 재고량이 전지 부위를 제외하고 모두 소폭 감소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회원사 2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돼지고기 재고량에서 7월 돼지고기 조사재고량은 총 6,548톤으로 전월대비 5.6% 감소했다. 부위별로는 전지부위가 922톤으로 전월대비 19.3%나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부위는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은 조사재고량이 64톤으로 전월대비 3.9% 감소, 등심은 328톤으로 전월대비 19.4% 감소했으며, 후지는 958톤으로 전월대비 7.9% 감소했다.

또한 삼겹살과 목등심도 감소해 각각 2,270톤, 1,031톤으로 전월대비 6.8%, 0.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갈비는 649톤으로 전월대비 9.1% 줄었다.

8월 돈열 항체양성률 95.5%

8월 돈열 항체 양성률이 지난 5월 93.8%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이래 6월 94.2%, 7월 95.4%를 나타낸 후 8월 들어 95.5%를 기록해 항체양성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8월 전국 1,274농가, 1만5천918두에 대해 돈열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중 비육돈은 전국 996농가, 1만3천325두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률은 95.3%로 나타났고, 번식돈은 221농가, 1천805두에 검사한 결과 96.8%의 양성률을 나타냈다. 한편 제주도는 57농가, 788두를 검사한 결과 165두에서 양성도수로 나타나 항체양성률 20.9%를 나타냈다.

돼지고기 구입시 '신선도' 제일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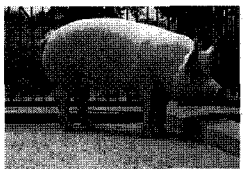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가격보다도 돼지고기 부위(용도)와 신선도를 더욱 고려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와 양돈수급안정위원회가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의뢰해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소비자 돼지고기 소비실태에서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돼지고기 구입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돼지고기 부위(용도)를 중시하는 비율이 32%, 신선도 34%로 신선도를 가장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구입가격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14%, 원산지 6%, 브랜드 4%, 판매업소 위생상태 4%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 조사결과에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구입시 '신선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20%로 집계된 것에 비하면,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소비하는데 있어서 계절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 요인'으로 소비자들은 '계절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22%)'라는 답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연, 계통조성 완료 한국형 종돈 기술 이전 실시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지난 12일 성환 축산자원개발부에서 '95년부터 7세대에 걸쳐 '02년에 산자수, 증체량, 지제 강건성 중심으로 개발된 한국형 종돈에 대한 기술 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종돈 축진요크의 후보종돈

기술 이전되는 한국형 종돈은 상표로 등록한 '축진요크' 및 '축진랜드' 계통 조성돈으로 다산종돈(전북 남원)의 종돈공급과 축진요크 및 축진랜드 20두를 1차 공급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성과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축진요크와 축진랜드는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고, 평균 근교계수가 9~13%로 높은 균일도를 유지하고 생산성도 우수해 국내 일반종돈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한국형 종돈에 대한 기술 이전은 계통돈의 유지와 증식을 통해 경영개선 효과는 물론 한국형 종돈의 국내 종돈 사육기반 조성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역원, 한·중 국제공동연구자 초청 세미나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9월 2일 중국 농업대학 박향숙 교수 및 중국 연변대학 국옥림 교수를 초청해 최근 중국에서의 '천연 중약제를 이용한 가축질병 연구동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검역원과 중국농업대간 한·중 공동연구과제 '중약제를 이용한 가축의 주요 질병 치료대체제 개발 연구(기간 : '05.7.1

~'08.6.31)' 수행을 위해 실시됐다. 세미나에서 박향숙 교수는 '중국에서의 천연사료 첨가제 연구 및 현황'에 대해, 국옥림 교수는 '중약제 약효 및 면역학적 연구'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축산농가에서의 항생제 대용으로 천연 중약에 사용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검역원, 기관명 변경 추진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쉽고 친밀감이 가는 명칭으로 기관명칭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역원은 새로운 기관명칭을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 내부직원과 수의과대학, 관련단체 등 외부 의견을 9월말까지 수렴하고, 10월중에 새로운 기관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관명은 지난 '98년 '국립동물검역소 및 국립수의과학연구소'가 통합기관으로 발족되면서 명명되어 왔다.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도축장별 병원성 미생물 집중검사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전후로 9월 30일까지 축산물작업장 및 축산물가공품을 대상으로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키로 했다. 따라서 경북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물 검사관과 도축검사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지를 확인하고, 소와 돼지 도체에 대해 주요 식중독 원인균인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을 집중 검사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고 있다.

경남도, 축산업등록제 100% 조기달성

경상남도는 최근 축산업등록제를 100%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월말 현재 4,385농가를 등록, 계획대비(4,030호) 희망등록농가를 포함해 등록목표를 100% 넘게 달성했다는 것.

경상남도는 축사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해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의무 규정인 소독시설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농가부담을 해소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는 축산업등록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금년에 한해 시·군 전담인력을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등록 전용 컴퓨터를 시군별 각 1대(20대)씩을 지원해왔다.

진주시, 가축 순회진료 봉사활동 전개

진주시는 지난 5일 가축사육 농가가 많은 이반성면을 대상으로 무료 가축순회 진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진주시는 이번 봉사활동이 고령의 노약자 및 영세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순회진료를 무료로 실시하고 가축별 사양관리를 지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축산업등록제 실적 전국 '최고'

전라남도의 축산업등록제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도에 따르면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5,394농가)와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들을 대상으로 등록제를 집중 홍보한 결과, 올해 8월말 현재 도내 총 6,688농가가 등록해 등록률을 124% 달성, 축산업등록제 실적이 전국 광역 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도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농가별 농경지 면적 확보, 사육두수 설정 등을 위해 축산농가 등록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축산업등록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9월말까지 미등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 가을전염병 예방 홍보 강화

전라남도는 가을철이 다가오면서 가을철 열성질환인 렙토스피라증과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쯔

쯔가무시증을 비롯해 렙토스피라증 등이 발생했다며, 올해에는 농민 등 전염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가축사육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과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물웅덩이 등 모기서식처를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가을철 발열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렙토스피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가축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는 한편,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서는 벌레 등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렙토스피라증 : 돼지, 개, 설치류로부터 사람에게 전파되기도 하고, 늪, 수도, 연못 등 오염된 물에 접촉함으로써 감염되기도 한다.

한국사이버농업인연,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허위표시 · 과대광고의 범위)에 따라 농산물의 사회 통념적인 효능 · 효과에 대한 홍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와 관련해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회장 장병수)는 성명서를 통해 동법으로 인해 농업인 홈페이지에 '동의보감', 농산물의 '효능', '효과'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허위표시 · 과대광고로 처벌받는다며, 소비자의 피해 보호라는 명목 하에 순수한 농업인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1차 농 · 수 ·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자체 생산한 농 · 수 · 축산물을 광고할 때 그 내용의 출처, 저자, 연도, 페이지 등 일종의 논문 참고문헌 인용방식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며, 관계 법령을 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에서 '농업 · 농촌 기본법'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 도축검사업무 통합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라남도가 도축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전한 육류 공급을 위해 도축검사업무에 대한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도축행정업무의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분산되어 있는 도축관련 자료를 D/B화해 통합관리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도축시설의 현대화 및 대형화에 따른 도축처리물량의 확대 증가의 문제점 해결과 안전축산물 공급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세 적용세율 연장 반대

농축산단체들로 구성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는 지난 8일 최근 경마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과의 기간연장을 골자로 입법예고가 실시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마사회는 수익금의 60%를 특별적립금으로 출연해 DDA,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농어촌 복지를 위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교육세 2% 환원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지방교육세의 연장이나 영구세화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진위는 지난 9월 14일(수)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 초청 조찬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세 적용세율 연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과도한 과세에 따른 낮은 환급률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현재 어려운 농업 ·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세율 연장으로 축발기금이 감축되어서는 안되며, 마사회의 설립취지와 맞게 경마가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성장해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추가 지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영웅 광주환경생명연구원(지정번호 제22호)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 기관명 : (주)영웅 광주환경생명연구원(대표 : 김영국)

▣ 소재지 : 광주시 서구 매월동 952-39 양돈